

장성군 '토방낮춤 사업' 수혜자 만족 호평

고령·장애인·거동불편자 주택에 무료로 설치 거주자 여건 고려 경사로, 난간, 계단 등 선택 2020년까지 1천228가구 설치 마무리 계획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시골집 높은 마루를 오르내리는 걸 보면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인 진원면을 찾은 김모(56)씨는 홀로 사시는 어머니 댁 마루에 설치된 경사로를 보고 크게 안도했다.

지난 가을 장성군이 '토방낮춤 사업'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시골집의 마루와 마당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무료로 설치해 줬기 때문이다.

덕분에 어머니도 편하게 마루를 오르내렸고 자녀들의 걱정도 크게 줄었다.

'토방 낮춤 사업'은 토방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마당과 토방 사이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주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사업이다.

장성군은 마루가 높은 옛날식 집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부터

토방낮춤사업을 추진해 왔다.

3년 차에 접어들어 현재 전체 설치 대상 가구인 1천228가구 중 455가구(37%)에 설치가 완료됐다.

올해도 390여 가구에 설치를 준비중이다.

남은 가구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토방 낮춤 사업 설치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혜자의 만족도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방 낮추기가 완료된 가구의 경우 수혜자 대부분이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이 평소 걱정만 했지 이런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토방 낮추기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직접 고안해 낸 실버정책이다.

평소 어르신들을 배려 시골집을 방문할 때 마루가 지나치게 높아 젊은 사람들도 오



장성군이 '토방낮춤 사업'의 일환으로 진원면의 한 농가에 설치한 경사로. 그 경사로 위를 동네 어르신이 오르고 있다.

르내기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 해결방안을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색 복지 사업인 만큼 시행 당시 대내외적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에는 주택 여건에 맞게 여러 형태로 설치되도록 했다

는 점도 한몫 했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고령자

와 장애인 등 거주자 여건을 고려해 경사로, 난간, 계단 등 거주자가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토방 낮춤 사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에 의한 불발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군은 토방 낮춤 사업 덕분에 '전남도

건축행정 건설화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이미 28%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고령화된 농촌현실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을 포함해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가 충분히 갖춰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은진기자 young671221@srb.co.kr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구례군,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구례군은 5월 31일까지 군민, 출향향우 등을 대상으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례군 구립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 등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산을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 861호선(전남-성삼재)은 급경사지 낙사로 인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훼손,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 지리산 관통도로를 폐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안전한 탐방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여수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분야별 전문가 36명 위촉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 공약사항인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교수, 시의원, 병원장, 단체 임직원, 시 국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인구 30만 회복 기반조성 전담 방안 ▲시민과 교육계의 소통·협력 방안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 때 자문내용을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공개모집에 93명이 지원했다.

시는 시정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의 평가, 경력직수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기획위원회 15명, 교육혁신위원회 10명, 의료혁신위원회 11명 등 당연직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고, 개별위원회를 총괄하는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여수=김영수기자 kms3056@srb.co.kr

광양시, 2022년 관광객 500만 목표 담금질

관광진흥협의회 열고 민선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광양시가 민선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한 새로운 관광도시 건설에 나섰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시청 상강실에서 민선7기 관광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관광진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광양시 문화관광해설사회 흥금숙 회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기본계획(안)의 핵심사항을 설명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관광진흥 기본계획(안)은 ▲광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 수용태세 개선 ▲신규 축제 및 이벤트 ▲홍보 마케팅 전략 등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축제, 관광코스, 관광상품 개발계획 등 단계와 중장기 사업을 구분해 담았다.

특히 중점 관광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관광거버넌스 구축 및 올해의 관광마케터 선정, 관광 페르소나 개발, 광양여행7선 선정 및



홍보, 웰니스관광상품 운영 등이 선정됐다.

이번 관광진흥기본계획(안)은 외부 용역이 아닌 관광과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관광 관련 사업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직접 수립한 것이다.

위원들은 “광양시가 관광 하드웨어 장착 이전에 관광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웰니스관광, 식도락여행, 전략적 홍보, 지역 관광전문 인력 양성 등 광양의 인지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장인 방옥길 부시장은 “위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 시민의 행복과 광양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 언제든 좋은 의견을 달라”며 관광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한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 분야 전문가와 문화마케팅, 축제기획자, 여행·숙박·음식업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양 관광 생태계 구축 등 관광정책 자문기능을 하고 있다.

광양=이승진기자 lsc6100@srb.co.kr

전남동부권 영화·드라마 촬영 '핫플레이스'

영화 '극한직업', '말모이', '나랏말싸미' 촬영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의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유치하는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한 영화 '말모이', '극한직업' 등이 순천과 광양 등에서 촬영됐다.

개봉 첫 주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 영화 '극한직업'은 작년 5월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촬영됐다.

마역반이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창업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됐다.

'극한직업'과 함께 흥행마라톤을 하고 있는 영화 '말모이' 역시 작년 6월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촬영됐다.

일제 강점기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밀리에 조선말을 수집하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또한 올해 여름 개봉 예정으로 배우 송광호가 세종대왕 역을 맡아 큰 관심을 받고 있



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촬영됐다.

전남도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유치에 힘 쓴다고 있는 전남영상위원회는 “지속적인 영화 유치를 위해 영화인 팸투어, 시나리오 창작공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을 시 최대 30%의 지출금을 환급해 주는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촬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취업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국비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안내

- 응시자격: 발달장애인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훈련직종: 제조기술 및 서비스(1개월~6개월 과정)
- 교육특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무료(국비)
 - 훈련교재 및 식사 무료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지급 *월 최대 28만4천원 지급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입학안내

- 모집인원: 00명
- 접수기간: 수시 접수
- 접수방법: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접수
- 전형방법: 센터 자체 입학선발평가를 통해 훈련생 선발
- 선발평가: 기초학습, 심리/직업평가, 의료평가 및 면접 등 실시

직업채용관 운영

이용대상: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등

상담문의 ☎ 062)380-0600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7층 (광주도시공사 빌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원모집

모집부문	인원	비고
간호사·심사간호사 간호조무사·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물치치료사 의무기록사, 조리사, 조리원	00명	모집분야별 면허(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급여조건: 면접시 협의
- 접수기간: 1월 15일 ~ 1월 25일(17시 마감)
-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가능
 - 이메일: Charmhosp@gmail.com
 - 우 편: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44 (주월동) 직원모집 담당자
- 제출서류: 이력서(연력서 기재), 면허(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등
- 근 무 지: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44(주월동) 개원예정 병원
- 기 타: 서류면접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 통보,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가칭) 광주참여병원 ☎ 062)519-7588, 519-7501

직원모집

나주혁신도시에 어린이와 주인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NH미래아동병원이 개원예정입니다.

- 모집내용: 간호사 3교대 / MD / 파트타임
- 나이특전: 나이트전담 간호사(연봉 3,700만원) /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조리사(원) / 관리과 / 약사
- 근 무 지: 나주시 빛가람동 338-1
- 모집기간: 상시 모집(개별통보)
- 개원예정일: 2019년 2월 예정
- 급 여: 면접 시 협의
-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증(면허증)
- 접수방법: 이메일, 전화
- E-mail: mayunez@daum.net

담당 H. 010-9284-2712

NH미래아동병원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전문직 300대기업 알바 테라케어업권

다양한 업종 채용정보를 만나요!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시라방 JOB